

학생들 목소리로 진화하는 학교 문화

도교육청, 중·고생 대상 '정책을 부탁해' 차담회 가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1층 징검다리에서 2019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시상 및 차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차담회에서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들이 모여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53건이 접수됐으며 순위 관계 없이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선정 대상은 이원철 학생의 '학생조정위원회 활성화', 조인성 학생의 '학교 기물관손 배상 개선', 정희라 학생의 '운동하는 학교 프로젝트 확대', 조은열 학생의 '자치외에도 공문을', 이진 학생의 '전북청소년 생활지도 제작', 강혜진 학생의 '꿈을 펼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학생의 '헌법교육', 이진우 학생의 '중학생수영 안전교육 실행', 권은를 학생의 '여학생 화장실에 위생용품 자판기 설

치', 하서린 학생의 '뱃진 어른으로 자라기 위한 시사교육' 등이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용기있게 첫발을 떼어줘서 고맙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성장을 돕는 곳인데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참여한 학생들의 제안을 보완하고 협력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교육방 향이나 학교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하서린 학생(전북제일고 2)은 "친구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들으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년에도 꼭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좋은 정책 제안 창구를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은열 학생(전북기계공고)은 "참여하기 전에는 정책으로 실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희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기뻐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KUSF 공동 주최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KUSF)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19 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가 15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호남(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의 체육특기자 대입 준비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정보와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9개 대학이 참여해 대입전형을 설명하고 1대1 대면상담도 진행했다.

도내에서는 원광대와 우석대, 수도권에서는 한국체대, 경희대, 중앙대, 단국대가 참여하며 조선대, 목포과학대, 백석대 등 9개 대학 입시 담당자가 현장에서 체육특기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입시 궁금증을 직접 해소했다.

입시 전반에 대한 기본사항과 정보,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안내도 준비됐다.

사전 참가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주 고농구, 인상고 야구, 남성고 배구, 이리고 축구 등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교사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고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 진행됐다.

'2019 KUSF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체육특기자대입포털'(info.ku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USF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의 협의체로서 현재 102개 회원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를 널리 공개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2016년부터 체육특기자만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기획, 개최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전통 혼례를 체험하며 이채로운 풍경을 연출했다.

"처음 접한 한국문화,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전북대, 아프리카 학생 20명 전공 교육·한국문화 체험 큰 호응

지난 13일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 혼례를 체험하며 이채로운 풍경을 연출했다.

맞절을 하며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하기도 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19 아프리카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연수사업차 전북대를 찾은 20명의 아프리카의 동물생명공학 전공 학생들이다.

가나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르완다, 보츠와나,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등 국적도 다양하다.

지난 7월 8일 전북대에 온 이들은 오는 8월 9일까지 5주간의 일정을

로 오전에는 한국어, 오후에는 전공 분야를 공부한다. 주말에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첫 주말을 맞은 이들은 이날 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전통혼례체험, 압화부채 만들기 등의 문화체험을 했고, 입실 필봉문화촌도 찾아 전통악기와 전통염색 체험, 그리고 전통연희극을 관람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흠뻑 빠졌다.

보츠와나에서 온 타피와 아탕 센틀(Tapiwa Atang Sentle) 학생은 "주중에는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주말을 맞아 한국의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다"며 "전북대에서 보낼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동물생명공

학 분야의 역량도 키우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 큰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현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전공 분야의 역량도 쌓고,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학생들은 앞으로 농축산 분야의 이론 및 실습교육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전북대 동물료센터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경주와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 다양한 한국문화도 체험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거점국립대 연합 대입설명회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립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대학의 대입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 수험자들에게 올바른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지역거점 국립대학 연합 대입전형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입 전형 설명회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 교육청·대학입학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대입전형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시종 진지하게 이뤄졌다.



전북대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대입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입학전형과 대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연합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학선택과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들이 연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3분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15일 2019년도 3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3분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로, 명예퇴직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신청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장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자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치원·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을 경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명예퇴직 제외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총무과(063-230-349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21명이, 올해 1분기는 8명, 2분기 5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롤링볼사이언스' 개최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기획전 '롤링볼사이언스'를 개최한다.

도내 학생들과 도민에게 체험과 놀이를 통해서 공간지각능력, 창의력, 탐구력, 상상력을 기르는 과학과 예술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롤링볼이란, 구르는 공이란 뜻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조형물로서 움직임에 중점을 둔 예술작품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한 분야이다.

롤링볼 작품을 감상하고 롤링볼의 메커니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5개월간 열린다.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롤링볼 작품(Art Zone) 속에서 리프트(공의 출발을 위한 와이어 엘리베이터), 트랙 스위치(다른 길로 갈아타기 위한 공들의 징검다리), 바운스

(새로운 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약대), 투프(공의 무한 질주 롤러코스터), 코일(폐속의 원심력 터널) 등 롤링볼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보고 즐길 수 있으며, 체험(Try & Play)을 통해 속도, 마찰, 관성, 운동에너지, 원심력, 중력, 가속도 등 살아있는 과학 원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

매일 6회씩(각 회당 50분 체험) 운영하는 이 전시회는 참여하고자 하는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며, 단체의 경우 온라인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과학교육원 관계자는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롤링볼사이언스'는 체험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간지각능력, 창의력, 탐구력 더 나아가 상상력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